

Japan Weekly Digest

2012. 7. 14 ~ 2012. 7. 20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 정보통신산업의 부진과 스마트폰 산업의 중요성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전력 다사용 중견·중소기업의 일본탈출 계속
- 이토추상사, 아시아의 봉제거점 확충
- 일본을 지탱하는 3대 기술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일본 정보통신산업의 부진과 스마트폰 산업의 중요성

□ 정보통신 분야,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

- 18일 발표된 2012년판 정보통신백서에 의하면, 일본의 수출을 견인해 온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지적임. 통신기계나 영상기기가 잇따라 수출경쟁력을 상실, 정보통신 관련 무역수지가 2011년 적자로 반전.
- 한편, 인터넷 배신사업자 등 서비스 분야의 수요는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어, 정보통신산업이 내수형 산업으로 되고 있다고 일본 총무성은 지적
- 백서에 의하면, 통신기기나 영상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무역적자는 1992년의 7.6조엔을 피크로 감소 기조로 반전, 2011년에는 100억엔의 적자를 시현
- 일본의 총 수출에서 점하는 정보통신의 비중은 2000년의 약 20%에서 2011년에 약 10%로 축소
- 내역을 보면, 반도체 등 전자부품은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한편, 휴대전화 등 통신기계나 음향·영상기기 등이 무역적자를 기록
- 휴대전화는 2011년 8600억엔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, 스마트폰 분야에서 미국의 애플사 및 삼성전자의 공세가 그 배경임.

□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급락

- 일본기업의 세계시장점유율도 저하되고 있음. 텔레비전은 2011년에 33%, 최근 4년간 약 10%포인트 저하, 휴대전화는 10%에서 2%로 급락함.
- 수출감소로 고용에도 영향이 파급되고 있음. 통신기계는 1990년에 9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었으나, 2010년에는 53만명으로 감소, 전자계산기 분야도 침체, 기기 등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약해지고 있음.
- 대조적으로 인터넷 관련 등 정보서비스는 존재감을 높이고 있음.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2010년에 111만명의 고용을 창출

□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견인차, 스마트폰의 경제적 효과

- 백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설정, 관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. 종래형 휴대전화의 이용자 중 약 60%가 스마트폰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하여 효과를 시산
-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합계 3조 6567억엔으로 시산됨.
- 통신회사에 지불하는 이용료가 1조 2180억엔 이상으로 가장 큼. 인터넷 경유 통신판매(1조 31억엔), 단말기 구입비(5536억엔) 등을 포함하면, 개인소비 증대효과는 연간 약 3.7조엔에 달함.
- 응용 소프트나 전자서적·신문 등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백서는 스마트폰 보급의 효과는 광범위한 산업에 미치고 있음을 지적. 스마트폰 관련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이 자재조달을 늘리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하면 연간 경제적 효과는 7조 1778억엔을 상회
 -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연간 9.9만명의 고용을 창출.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포함하면 약 33.8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음
- 세계 지역별로 스마트폰 시장동향을 보면, 2009~2011년까지 일본의 판매대수 증가율 1.4배에 비하여,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4.2배, 세계 전체로는 2.7배 증가. 메이커별 시장점유율로는 일본계 기업은 모두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.
- 백서는 스마트폰 관련 세계시장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, 일본 기업들은 그 과실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, 앞으로 휴대전화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한 성공전략을 짜는 것이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전력 다사용 중견·중소기업의 일본탈출 계속

- 절전 요청이나 전기요금 인상에 직면하여, 금속가공 등 전력을 대량 사용하는 일본의 중견·중소메이커들이 공장의 조업을 단축, 제품 일부를 해외조달하여 공급을 유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.
- 자가발전 장치를 도입하거나 비싼 전기요금을 물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,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편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임.
- 어려운 전력사정으로 중견·중소기업들의 일본 탈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음.
 - 포크리프트와 건설기계의 부품을 제조하는 금속가공메이커, 토요시마는 금년 여름 부품생산량을 줄이고 부족분을 중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임.
 - 오오이 원전 3호기의 재가동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2010년 여름에 비하여 10%나 많아졌기 때문임.
 - 동사는 압연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, 포크암이라 불리우는 부재 분야에서 일본 최고 수준임. 압연공정이 공장 전체 사용 전력의 절반을 점하고 있음.
 - 중국 공장에서는 강재를 압연하여 압의 완성품으로 마무리한 다음, 일본에 수출.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생산코스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
 - 주물 제조업체인 쓰루이제작소는 9월부터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베트남의 공장으로부터 주물부품 수입을 본격화 할 계획임. 전기요금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트를 유지하려면 해외생산 밖에는 없다는 것.
 - 현지 인건비나, 수입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엔고도 감안하면, 수송비를 포함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높은 일본의 본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유리하다는 것
 - 그 제 1탄으로서, 범용형 프레스가공기 부품에서 시작, 점차 엘리베이터 부품 등에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. 당분간은 생산량의 10%정도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것
 - 본사 공장은 대형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에 특화해나갈 계획

□ 이토추상사, 아시아의 봉제거점 확충

- 이토추 상사가 아시아의 의류 생산거점 확충에 나섬. 캄보디아와 인도 등에 봉제공장을 가진 영국의 의류 제조·도매유통 기업을 매수, 중국에 집중해있는 생산거점을 분산시키는 이른바 「차이나 플러스 원」 전략을 가속화.
-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, 봉제를 수탁가공하고 있는 일본의 어패럴기업들사이

에서 채산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응한 것임.

- 현재 70%의 중국의 비율을 2013년 3월까지 65%까지 낮출 계획임.
- 이토추는 최근 유럽자회사 등을 통해, 영국 의류 제조·도매유통 기업인 「브람 호프그룹홀딩스」를 매수.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50억엔 정도에 매수하고 앞으로 CEO등을 파견할 예정
- 브람호프는 영국의 대형 슈퍼인 막스앤스펜서(M&S)의 PB(자사기획)상품 제조가 주력사업임. M&S에 납품용으로 제조하는 신사복이나 여성내의 류 등이 매출액의 97%를 점하고 있음.
- 의류의 기획부문에 더하여 M&S의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봉제공장을 캄보디아와 인도, 스리랑카에 5개소를 가지고 있음. 생산능력은 셔츠가 연간 450만착, 여성내의가 2100만착, 2012년 3월 결산기 매출액은 약 145억엔
- 이토추의 섬유부문은 매출액이 2012년 결산기에 약 6천억엔으로 종합상사로 는 최대 사업규모임. 어패럴기업으로부터의 봉제수탁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외에는 베트남,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협력공장을 가지고 있음.
- 브람호프를 산하에 둬으로써 자사공장이 없던 캄보디아, 인도, 스리랑카에도 생산거점이 늘어남.
- 봉제수탁사업의 70%를 의존하는 중국은 인건비 상승에 더하여 봉제라인의 부족 등의 문제도 가시화되고 있음. 봉제를 하청주고 있는 어패럴기업들로부터 리스크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- 이토추는 이번 매수를 디딤돌로 하여 이같은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서두르고 있음. 브람호프의 지명도를 활용, 유럽의 어패럴기업으로부터의 봉제수탁도 확대할 계획임.

□ 일본을 지탱하는 3대 기술

- 일본을 지탱해주는 기술에 관하여 17일자 일본경제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
- 첫째는 독자성임. 일본의 경우 해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살리지 않을 수 없음. 파력발전(파도의 상하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 발전하는 방법)이나 조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실용할 수 있게 되면 아시아 등지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.
- 화산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린 지열발전도 경쟁력임. 또한 정수시스템은 막기술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세련된 품질관리의 강점이 있다는 것임.
- 두번째는 출구전략임. 기술에는 독립적인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이 있음.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는 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으로 공급측의 투자의욕이 높

아지는 한편, 전력요금 인상으로 개인소비를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음.

-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절약 등을 지향한 환경배려형 도시(스마트 시티)의 발전 시스템에 조립되어 해외로 수출. 이같은 출구전략이 있어야 비로소 부의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.
- 세번째는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술임. 의료기기나 풍력발전은 부품수가 수백개에서 만 여개에 달함. 지역별로 축적된 중소기업의 산업인프라에 부품 생산을 맡기는 경우, 고품질·저비용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지역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.
- 관서지역의 배터리클러스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전통산업의 핵심기술을 토대로 전지의 부재 개발에 성공하고 있음.
- 최근에는 식물의 광합성 프로세스를 해명하여, 인공광합성 기술의 실용화로 일본내 최정상을 달리고 있음. 첨단기술에는 반드시 불확실성이 따르는 하지만, 국내에서 육성된 기술이 국제경쟁에서 패퇴하게 되면, 투자한 기술의 과실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임.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이토츄상사	2012.7.15	봉제의류	영국/브람호프 그룹홀딩스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 50억엔 정도
태양일산	2012.7.15	액화가스	필리핀	직접투자/액화가스공장 신설, 투자규모 약 30억엔
아데란스	2012.7.17	가발	미국/헤어클럽 (HC)	직접투자/HC의 모기업, 레지스코퍼레이션의 주식 100% 취득
미쓰이물산	2012.7.18	화력발전소 건설	가나/CICO	수주/타코라디 2TO 발전소확장공사, 한국전력 건설자회사와 공동 수주
스미토모 상사	2012.7.18	부품·소재	한국/지식경제부 산하 조직	제휴/부품·소재분야에서 한·일 기업을 중개, 합작 및 협력사업 추진
DOWA	2012.7.18	알루미늄·연 합금 가공	태국	직접투자/공장건설, 동남아생산거점 구축
일본정광	2012.7.18	난연조제 판매	중국	직접투자/판매회사 신설
유니참	2012.7.18	종이거저기·생리용품	중국	직접투자/생산자회사 설립
닛산자동차	2012.7.19	자동차	한국/리노삼성 자동차	생산제휴/다목적스포츠차량 (SUV)의 생산위탁
스미토모생명 보험	2012.7.19	보험	베트남/바오베트	자본제휴/HSBC 보유지분의 18% 출자
일본케미컬	2012.7.19	제약	영국/GSK	기술제휴/바이오신약 공동개발
토요타자동차	2012.7.20	자동차	독일/BMW	포괄제휴/전기자동차 등 환경 기술의 상호 공여
토요타자동차	2012.7.20	자동차	프랑스/푸조시트 로 엔 그룹 (PSA)	생산제휴/상용차의 생산위탁
닛토전공	2012.7.20	환경 및 의 료 관련 바 이오	스위스/로잔느 공과대학	직접투자/연구개발거점 설립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소비세 인상의 경제적 영향 시산』 닛세이기초연구소, 7월14일

*출처: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econo_letter/2012/we120713.pdf

(2) 『일본의 모노즈쿠리를 지탱하는 금형산업의 과제 : 일·중 비교로부터의 시사』
일본정책투자은행, 7월18일

*출처:http://www.dbj.jp/ja/topics/report/2012/files/0000010396_file2.pdf

(3) 『2012년판 정보통신백서』 총무성, 7월18일

*출처:<http://www.soumu.go.jp/johotsusintokei/whitepaper/ja/h24/pdf/index.html>

(4) 『스마트폰 마케팅 추진』 NTT데이터경영연구소, 7월19일

*출처:http://www.keieiken.co.jp/monthly/2012/0710_phone

(5) 『대중 무역투자의 변천』 일본무역회, 7월19일

*출처:http://www.jftc.or.jp/shoshaeye/pdf/201207/201207_56.pdf

(6) 『근년 국제무역론의 진전 : 이질적 기업의 무역행동에 관한 이론과 실증』
일본은행 금융연구소, 7월20일

*출처:<http://www.imes.boj.or.jp/research/papers/japanese/12-J-10.pdf>